

頭光이 있고 兩手는 胸前에서 結印하였으며 胸部 中央에는 卍字가 金泥畫되었는데 傳來의 經緯는 알 수 없다. 下部 左右에 金字로서 縱書된 發願文이 있어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伏爲

皇帝萬年 三殿行李速還本國之願新畫成彌陀一幀

施主 權福壽

法界生亡兼及己身超生安養 同願道人戒文同願朴孝「眞」

大德十年

〔註〕大德十年은 西紀一三〇六年으로 高麗 忠宣王 三十二年인 바 「元時代」의 作品으로 陳列되어 있었다.

二、觀無量壽經變相① 一幅 知恩院藏

今年二月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同院秘寶展②에 出品하려다가 事情에 의하여 保留되었다는 바 그後 東京國立博物館에서 撮影되었다. 絹本着色으로서 縱七尺四寸 橫六尺四寸의 大幅인 바 觀無量壽經의 順序를 따라서 阿彌陀와 그 淨土를 觀想하기 위한 十六觀의 變相을 그린 것으로 國內에서 同代의 遺例를 볼 수 없는 稀品이다. 下端에 朱地金字로서 十六觀頌과 發願文이 있어 年代와 僧俗名과 畫工을 알 수 있다. 知恩院에는 此外에 乙酉(成化元年 一四六五 A. D.) 十二月 李孟根筆의 觀經變相圖가 傳來하고 있어 그 構圖③가 이와 同一하다고 한다. 末尾에 보이는 發願文은 다음과 같다.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盡生極樂國」至治三年十月誌
幹善道人日精「同願道人眞」同願道人志堅「同願道人戒澄」同願別將朴永文「同願夫人金氏」同願隊正金仁「同願大禪師承道」同願淨業院住持僧統祖「畫工薛沖」畫工李「

(至治三年은 西紀一三三三年 高麗 忠肅王 十年이다)

註

① 「京寺遺寶撥英」第一輯(昭二三 東京美術書院刊)에 圖版과 鳥田修二郎氏의 解說이 있다.

② 이 곳에 出品되었던 「觀音三十二應幀」에 對하여는 本誌(第二卷三

號通卷八)에 紹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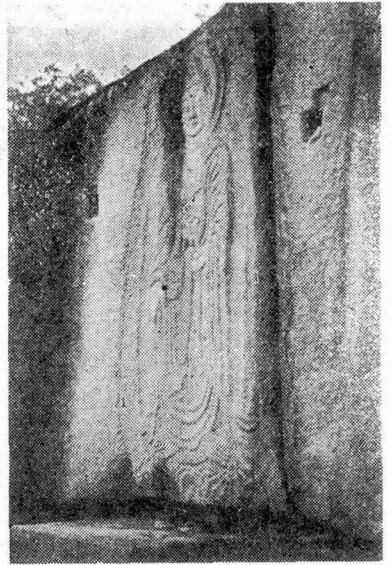
③ 知恩院에는 高麗寫經으로서 「十六觀經」이 所藏되고 있어 그 插圖는 이를과 判異하다고 하나 詳細한 것은 알 수 없다.

三川寺址 入口 磨崖如來像

鄭 明 鎬

서울서 坡州行 버스로 約三〇分가면 高陽郡 神道面 所在地에 이른다. 여기서 下車하여 津寬寺①於口에서 東北方의 小路를 따라 개울을 건너 約一〇m가면 栗林이 있는 周圍에 古瓦와 礎石이 散在하고 있는데 礎石은 羅末麗初의 手法을 지닌 二段의 molding이 있고 其外에 李朝時의 蓋瓦도 보인다. 이 곳에서 碑峰으로 가는 溪谷을 따라 約五、六百m 올라가면 採石場에 이르게 데에 近處에 磨崖佛이 있다. 이 곳에서 約百m 더 올라가면 三川寺址가 있는데 이 附近을 三川峯(或은 三千峯)이라고 한다.

이 磨崖佛은 今西龍博士의 紹介가 있기는 하나 實測及 實際調査까지 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므로 筆者는 一九六〇年 十二月初에 當地를 調査하여 그 優秀함에 驚嘆하였다. 多幸히 이 佛像의 保存은 良好한데 이 는 大花崗岩群斷崖에 浮彫되었고 上部에는 別石의 大岩이 屋蓋와 같이 上置되어 있는 點이 保存의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이 斷崖에는 지붕을 끼우기 위하여 凹型의 홈을 파서 지붕形을 이루었고 이를 받칠 支柱의 插入孔이 있다. 이 佛像의 左使身光을 浮彫한 外廓部와 接한 곳은 上下一直線으로 금이 가서 別石과 같이 切斷되어 있고 佛像 바로 前方에는 上流에서 흐르는 清水가 한층이 못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 佛像 앞에는 信徒들의 精誠으로 築成한 작은 築臺가 있으며 그 곳에 少形祭壇이 重瓣蓮花臺座에 接해 있다. 佛像은 纖細한 彫刻의 立佛로서 全高三・〇二m 身高二・五九m 肩幅八三cm 蓮花臺高二三cm 幅一・二六m 頭光의 外幅七六cm 內光約五六cm이다. 佛像의 頭部는 剃髮形



이며肉髻는若干늘은便이다。眉目이秀麗하고兩볼이豊美하며 코는 옷투하고口脣은담은채微笑를 띠우고있다。兩耳는 길게 처져있고 이마에는白毫를 끼었던 구멍이 있다。顔面은圓形에 가까

우며 목에는二道를俱備하고左手는 팔을 굽혀 허리 위에 올렸고 손바닥을若干 오므려서 무엇인가를 올려 놓은 것 같고右手는 밑으로 내려뜨려서 內掌하였고 두팔은蓮花臺上에 左右로 벌리고 있다。法衣는通肩이며 三道 아래에 옷깃같이 보이는線이 있다。裙衣上에 가슴左쪽에서 右下로 두른帶와腰部에 매듭이 보이며 法衣의 주름은 兩팔에 걸쳐서 次次 넘어지면서 平行圓弧를 그리고 밑으로 흘렀고 法衣에는彩色하였던 赤白色의 痕跡이 있는 듯하다。

佛像造成年代는高麗初로 推定되며 京畿道內의 磨崖佛中 最大의 優作으로 생각된다。아마도 國寶的인 價値가 있을 듯하며 앞으로의 保存이 要望된다。次後 細密한 調査 研究가 기대되는 바이다。

註

①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津寬外里

②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四一頁

雙谿寺 浮屠에 對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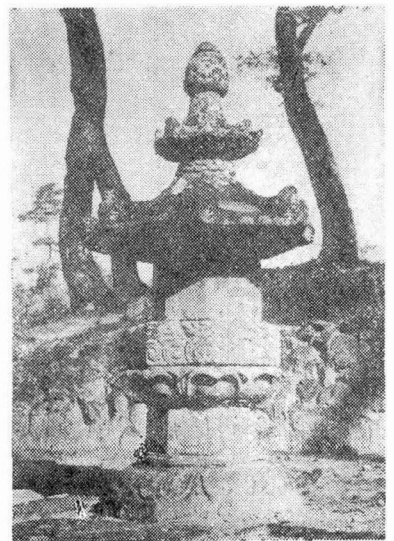
鄭 永 鎬

慶南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 所在 雙谿寺 境內에 國寶로 指定하게 된(第

第二卷 第五號 通卷十號

五六七號) 浮屠一基가 現存하여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이 浮屠는 本寺에 서約一〇〇m 北西쪽으로 바라다보이는 山봉우리 위에 位置하였으나 그 周圍에 松林이 울창하여 汗눈에 찾기는 困



難하다。봉우리의 稜線을 方約 7m로 平平히 닦아 石壇을 造築하고 그 中央에 浮屠를 建立하였는데 이 곳이 原位置인 듯 하였다。浮屠는 基壇、塔身、相輪의 三部分으로 된 全高二・〇五m의 八角塔이다。基壇部는 地臺石이 거의 埋沒되어 그 一部가 露出되어 있으며 下臺石은 八角基臺 위에 八葉複瓣의 覆蓮을 만들었고 八角基臺의 側面에는 아무런 彫刻도 없다。이 覆蓮部 上面에는 一段의 中石과임을 刻하였고 그 위에 二段의 받침으로 中石을 받고 있다。中石은 八面に 모두 圓形에 가까운 眼象을 새겼는데 그 외 다른 裝飾은 없으나 流麗한 手法이 注意를 끌었다。中臺石의 仰蓮 또한 八葉의 複瓣으로 下臺石의 覆蓮과 對稱하였는데 그 下部에도 二段의 받침을 만들었다。中臺石 仰蓮上에는 高二・二cm의 八角臺石이 놓였으며 各面에는 雲紋을 굵게 浮刻하였다。塔身에는 八面に 全히 아무런 彫飾이 없다。蓋石은 亦是 八角이며 八個의 귀퉁이 달려 있었으나 現在는 三個가 破損되어 地上에 떨어져 있고 五個만 남아 있다。지붕 위에는 蓮紋으로 推測된 彫刻이 있는 覆鉢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조그만 八角寶蓋를 올렸는데 이 蓋石에도 八個의 귀퉁이 달려 있는 바 모두 完存하다。이 寶蓋 위에는 寶珠를 올렸는데 比較的 높은 便이었다。浮屠의 保存은 良好한데 蓋石의 一部가 破損되었음이 遺憾이다。塔全體로 보아 그리 裝飾的인 技巧는 안보이며 精鍊된 最優秀作으로 보기는 어려우